

“밤낮없는 드라마 촬영 규칙적 생활 그리웠다”

드라마 ‘최강배달꾼’ 마친 고경표

첫 주연…스태프들 고생 눈에 들어와 이전 작품 모습 안 보인다는 칭찬 기뻐 정해진 시간 일어나 어학원도 다니고 사람 고경표의 삶도 포기하지 않을 것

연기자 고경표(27)는 2년 전부터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다. 절반 척하지 않고 “못났음을 인정” 하며 받아들인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걸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결정적 계기는 1년 전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청춘’이다. 아프리카 대자연 속에서 “멈춰 있던 모든 사고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

게 2016년에 다시 자동한 고경표의 시계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같’ 움직이고 있다.

고경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일정한 수입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며 “대신 ‘꽃보다 청춘’ 이후 앞만 보고 달리던 모습에서 조금씩 내려놓고 있다”고 했다.

이제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것이 힘들지 않다. 공감능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말 한마디를 뱉기 전 상대방의 입장에 자신을 대입한다. 음주 스타일도 달라졌다. 과거 “부어라, 마셔라” 했던 그는 다음 날 눈을 뗄 때 전날의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 ‘공허함’이 싫어 변하게 됐다.

고경표는 2015년 11월 tvN ‘응답하라 1988’부터 23일 종영한 KBS 2TV 금토드라마 ‘최강배달꾼’까지 연기에 만든 시간을 쏟았다.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할 수 있을 때 하

자는 주의다. 무엇보다 새로운 캐릭터를 연구해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겁다. 연기를 처음 시작할 때 세운 “스펙트럼 넓은 연기자”의 목표에 가까워지는 자신을 기다리는 게 재밌다.

“이전 작품의 모습이 이번에는 전혀 안 보인다는 칭찬이 가장 듣기 좋다. 하하! 매번 다른 캐릭터를 소화하지만 어색하고 위화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지금도 거울보고 표정 연습하며, 걸음걸이 등도 사소하지만 변화를 주려고 한다.”

‘최강배달꾼’으로 주인공도 처음 경험했다. 그동안 미처 몰랐거나 지나쳤던 책임감과 존경심을 배웠다. 그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스태프들이 눈이 들어왔다. 이전에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대략 알았지만 이번에 제대로 배웠다”고 했다.

고경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규칙적인 생활”이다. 낮과 밤 구분 없이 들쭉날쭉한 촬영 스케줄을 소화해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일어나 친구와 운동하고, 어학원도 가는 등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고 “‘사람 고경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시간 날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하고,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도 하고 싶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도 마시는 등 여유를 잊고 싶지 않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순간 행복이라고 여겨야 열심히 살 수 있다”고 말한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 연기자 고경표는 “2년 전 내려놓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행복을 가끼이에 두게 됐다”고 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순간 행복이라고 여겨야 열심히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의리의리한’ 라미란의 필모그래피

바쁜 스케줄에도 ‘내안의 그놈’ 출연 ‘미쓰 와이프’ 인연 강효진 감독 신작

배우 라미란이 한 번 맛은 인연을 작품으로 계속 이어가는 행보로 시선을 모은다.

라미란은 10월부터 촬영 예정인 영화 ‘내안의 그놈’에 캐스팅됐다. 이 영화는 2015년 영화 ‘미쓰 와이프’를 통해 호흡을 맞췄던 강효진 감독의 신작이다.

현재 라미란은 10월 11일 첫 방송하는 tvN 수목드라마 ‘부암동 복수자들’ 촬영에 한창이며, 10월 중순부터는 tvN 월화드라마 ‘마配偶’에 출연하게 된다. 그동안 자주 보여준 코믹하고 억척스러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7년 동안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여성상을 표현했다.

라미란 측 관계자는 “평소 사람들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작품을 하면서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스태프들과는 힘든 과정을 함께 이겨내 더욱 정이 깊다”고 말했다.

앞서 라미란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KBS 2TV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 출연하며 동고동락한 강민경 PD와의 인연도 이어갔다. 이 드라마에서 조연출을 맡았던 강 PD가 메인 연출자로서 처음 나서는 KBS 2TV 단막극 ‘드라마 스페셜-정마담의 마지막 일주일’에 참여했다. 라미란은 강 PD의 연출력에 힘입어 그동안 자주 보여준 코믹하고 억척스러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7년 동안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여성상을 표현했다.

라미란 측 관계자는 “평소 사람들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작품을 하면서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스태프들과는 힘든 과정을 함께 이겨내 더욱 정이 깊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신과 함께’ 흥행의 신과 함께하나



예고편 공개 하루 만에 100만뷰 돌파
개봉 3개월 앞두고 관객들 기대 한몸

배우 하정우와 차태현, 주지훈(왼쪽부터)이 통친 영화 ‘신과 함께’가 예고 영상 공개만으로 개봉 3개월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연예우로 나선 ‘빅3’ 외에도 이정재 오달수 마동석 김하늘 도경수까지 화려한 출연진을 갖춘 사실도 호기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신과 함께’는 한국영화에서 처음 시도하는 제작 방식으로 완성됐다. 총 제작비가 300억 원에 달하는 영화는 모든 촬영을 마치고 이를 2부작으로 나눠 순차 개봉하는 방식이다. 1부가 12월 20일에 공개되고, 이어지는 2부는 내년 여름 개봉한다. 할리우드 대작 ‘반지의 제왕’ 등이 성공한 시리즈 방식이 한국영화에서 처음 이뤄진다.

한편으로 ‘신과 함께’는 드림팀의 도전이기도 하다. 연출을 맡은 김용화 감독과 제작진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며 파트너십을 발휘해온 관계. 이에 더해 김 감독은 2013년 야구하는 고릴라가 주인공인 ‘미스터 고’ 작업을 계기로 컴퓨터그래픽에 탁월한 기술력을 확보했고, 이를 이번 ‘신과 함께’에 전부 쏟아 부었다. 예고편에서 일부 공개된 저승의 세계는 컴퓨터그래픽 완성도에 대한 기대치까지 높인다.

제작 관계자는 27일 “웹툰을 영화로 옮기는 사전 준비 과정에 5년이 걸렸고 촬영 기간 10개월까지 더해 장장 6년을 쏟아 부은 작품”이라며 “상상 속에 존재하는 곳, 아무도 가 본 적 없는 곳으로 떠나는 여정”이라고 작품을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goff1024@donga.com

송강호, ‘옹팔’ 진주를 이겨라?

‘택시운전사’ vs 김설 주연 ‘아일라’
미국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경쟁

송강호의 경쟁상대는 ‘응답하라 1988’의 ‘마스코트’ 진주?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진주 역 김설이 주연한 터키영화 ‘아일라: 전쟁의 딸’이 내년도 미국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후보 출품작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송강호가 주연한 ‘택시운전사’와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다.

‘아일라: 전쟁의 딸’은 한국전쟁 당시 고아가 된 5살 소녀와 유엔군으로 접전한 터키 병사 슬레이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아일라’는 슬레이만이 소녀에게 지어준 이름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3월 ‘MBC 스페셜’이 한국·터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다큐멘터리 ‘아일라: 푸른 눈의 병사와 고아 소녀’에서 소개되



기도 했다.
영화의 주연 중 한 사람은 아일라 역을 연기한 김설. ‘응답하라 1988’에서 고경표의 어린 여동생 진주 역으로 출연해 이 드라마의 ‘마스코트’라 불렸다. 김설은 터키 병사와 우정을 나누는 고아 소녀 역을 맡아 애절한 연기를 펼쳤다는 후문이다. 영화에는 이경진 등 한국 연기자들도 함께 출연했다.

터키 측은 10월 개봉을 앞두고 영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내년도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후보 경선에 출품했다.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부분은 각국이 한 편의 영화를 출품해 그 가운데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작을 결정한다. 후보작은 내년 초 확정된다.

‘신과 함께’는 주호민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저승에 온 망자가 그를 안내하는 저승사자들과 함께 49일 동안 7개의 지역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다. 원작이 워낙 크게 인기를 얻은 데다 주

숫자뉴스

2.2%

주월, 문채원이 주연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미국 리메이크작 첫 방송 시청률이다. 미국 시청률조사회사 TV버라이너 넘버스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현지시각) 지상파 방송인 ABC에서 방송된 ‘굿닥터’는 18~49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시청률에서 2.2%를 기록했다. 모두 1122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간대 NBC ‘더 브레이브’는 1.3%(596만 명), CBS ‘스콜피온’은 1.0%(575만 명)로 조사됐다.

#해시태그 컷



‘동안 갑’ 김성령의 무결점 민낯

나이는 우리만 먹는 걸까. 50대 김성령의 미모가 대단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결점 없는 완벽한 피부를 과시한다. ‘민낯의 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저 표정은 어떠한가. 세월의 흐름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눈가 주름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부스스한 헤어스타일마저 소화하는 실력. 김성령은 “머리를 다시 길어야겠다”며 변신을 예고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스포츠동아 #김성령 #50대 #민낯 #동안 #엄자작

알쓸연잡

〈알고보면 끌데있는 연예 잡학사진〉

차트 줄 세우기의 비밀 '스밍 돌리기' 아시나요



대형 아이돌 가수 가 새 앨범을 내면 심야, 새벽 시간대에만 음원차트에서 ‘줄 세우기’가 이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도 음악사이트 시장점유율 1위인 멜론의 실시간 차트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수록곡들이 1위부터 10위권을 차운다. 하지만 출근시간 무렵부터 아이유 신곡이 1위에 오르고, 선미 등의 노래가 10위권에 재진입한다.

‘줄 세우기’는 앨범 수록곡들이 실시간 차트 상위권에 나란히 줄을 지어 랭크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방탄소년단처럼 팬 층이 탄탄한 인기 아이돌 가수들에게 주로 나타난다. 다만 ‘줄 세우기’는 종일 지속되지 못하고 특정 시간대에 나타난다. 그것도 새벽시간에만, 음원 차트 순위가 밤과 낮이 다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다.

이런 현상은 특정 팬덤의 ‘스밍 돌리기’ 때문이다. ‘스밍’은 인터넷에서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의 줄임말로, 팬들이 특정 곡을 무한정 반복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 재생할 때 각 곡마다 ‘스밍’ 횟수를 정하면, 원하는 대로 특정 곡의 순위도 정할 수도 있다. 반복재생 횟수와 곡을 정리해 ‘권장 스트리밍 리스트’를 만들어 팬들끼리 공유한다.

다른 아이돌 그룹 팬들과 연대해 ‘스밍 품앗이’를 하기도 한다. 물론 팬층이 두터우면 다른 팬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줄 세우기를 해낼 수 있다.

‘스밍’이 특정 시간대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도 음원사이트의 주 이용 층이 10대부터 20대라서 평일 낮에는 학업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교나 퇴근 후 시간대인 밤부터 새벽에 이루어지고, 아침이 되면 ‘정상적인 차트’로 돌아오게 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유진한·고창일 기자